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2.(금) 12:00
(지면) 2026. 6. 13.(토) 조간

2026 북중미월드컵 거리응원, 첫 경기부터 빈틈없는 안전관리 실시

- 6.12(금) 서울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관계기관 합동 상황관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2일(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선다.

특히,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당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거리응원(19일, 25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안전한 거리응원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와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책임자	과 장	박현용 (044-205-5250)
	사회재난대응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허재훈 (044-205-5269)